

## [2000 OMC 저녁집회]

### 셋째 날 :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용조 목사 / 본문 : 행 3:1~10 / 페이지 수: 2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백 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다락방에서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십시오.

#### **제 구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에게도 성전에 가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기도를 혼동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상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면 가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기도하다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도입니다.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났을 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기도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앓은뱅이였습니다. 그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어디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어떤 개입이 없는 한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앓은뱅이가 알고 있던 자신의 모습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그를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들이 알고 있는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앓은뱅이에게서 복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수가성의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 등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을 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 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는 돈, 건물, 사람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마음, 즉 사랑으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교회는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많은 이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분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9절을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도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찬양하며 성전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그의 평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에는 충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앓은뱅이는 그의 내면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민족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